

신학교육, 목회 현장과의 교학협동 체제로

박준서
연세대 신학과 교수



1. 신학과 교육의 역사

신학교육은 중세 대학이 생기기 이전부터 수도원에서 수도사와 성직자 교육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 후 대학의 설립과 함께 신학교육은 법학 및 의학과 더불어 전문고등교육으로 자리잡아 왔다. 16세기 초 종교개혁은 중세 유럽 대학의 일반적인 신학교육과는 다른 개신교의 독자적인 신학교육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도 일반대학과 별도의 교구 단위의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유럽 전통에서 신학교육은 일반대학에서의 자유로운 학문적 신학교육과 각 교단 또는 교파에서 자기들의 목회자 양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신학교육으로 크게 양분되어 발전해 내려왔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양자의 구분이 전개되었다. 하버드(1636), 예일(1701), 프린스턴(1746)은 신학교육 전통으로 출발하여 점차 일반대학으로 발전하면서 신학과는 대학원 과정의 신학부(신학대학원)로 독립하게 되었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개신교의 교파 분열이 극심하여짐에 따라 각 교파의 신앙과 신학을 대변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할 수 있는 독자적인 교단신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1885년 장로교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의 내한과 더불어 본격적인 선교활동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신학교육도 자연히 이들 양대 교파의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교 초기의 신학교육은 선교사를 돕는 조사(助師)나 성서를 팔러 다니며 전도하는 매서인(賣書人)을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한국인 목회자의 양성이 요청되었다. 선교사로 구성된 선교사 공의회에서 '한국교회의 토착 교역자를 양성하고 영적인 인간을 길러낸다'는 목적으로 1901년 평양에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를 설립하여 두 명의 선교사(교장 S.A. Moffett과 Graham Lee)가 두 명의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5년 과정으로 한 해에 3개월만 수업을 하고 9개월은 교회에 봉사하며 자습과 숙제로 학업을 계속하게 하여, 1907년에 최초의 한국인 목사 7명을 배출하였다. 1920년부터 학제를 개편하여 3년 과정에 봄, 가을의 2학기제로 바꾸었으며, 교과목도 47개로 크게 늘렸고, 교수진도 모두 선교사들이었지만 7명으로 보강되었다. 1925년에 이르러 비로소 최초의 한국인 신학교수로서 미국 유니온신학교를 졸업한 남궁 혁이 취임하였다.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장로회신학교가 폐교되었다가 1940년 다시 개교하였고 같은 해에 서울에는 조선신학교(현 한신대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후 장로교 계통 신학교는 고신대학(1947)과 총회신학교(1951)로 분열되었다.

감리교의 경우를 보면, 사경회(查經會)의 연장으로 지방전도사 학습과정인 신학반을 두었다가 1905년 4년 과정의 전문신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감리회신학당을 개설하였는데 이 신학당이 감리교신학대학교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성결교는 1911년 경성성경학원을 개원하였는데 1959년 서울신학대학으로 승격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교단의 신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특정한 기독교 교파의 배경이 없는 일반대학에서 신학과를 최초로 개설한 것은 1915년 선교사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전문대학이다. 그러나 일제하의 상황과 교파중심의 목회자 배출이 주류였던 당시의 신학교육 추세에 밀려 연희전문 신학과는 학생을 배출하지 못하다가

해방후 1946년부터 본격적인 초교파 신학교육을 실시하였다. 또다른 일반대학의 초교파 신학교로서 이화여대의 기독교학과가 1958년 설립되었다.

해방 이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이 1946년 처음으로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고 이어서 한국신학대학(1948), 이화여대 기독교학과(1958), 감리교신학대학(1959), 서울신학대학(1959), 장로회신학대학(1961) 등이 정규 4년제 대학으로 새출발 하였다. 이상의 6개 학교는 높은 신학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인정되었고, 한국 신학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이외에 장로회신학대학에서 분열된 총회신학대학과 부산의 고신대학교는 장로교 계통의 보수적인 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신학과 대학원 교육은 1952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내에 신학과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개설된 것이 그 효시이다. 1954년에 국내 최초의 신학석사 3인이 배출되었고, 1974년에는 국내 최초로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였다.

1960년을 전후하여 교단중심의 신학대학들이 문교부의 승인을 받았다. 당시로는 대학원 설치기준령에 따른 시설, 교수, 장서의 미비로 대학원 개설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과 대학원 교육의 발전이 더디었는데, 1964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의 설립으로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1958년 아프리카 가나에서 열린 국제선교협의회(IMC)는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신학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학교육 기금(Theological Education Fund)을 조성하였고, 이 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주요 교파인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연합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연세대학교 내에 연합신학대학원을 개원하였다(1964). 신학의 학부 과정은 교파별로 나누어져 있으나, 대학원 교육은 연합으로 시행하자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개설한 연합신학대학원은 한국 신학교육을 크게 향상,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원의 전공분야도 성서신학부의 구약학과 신약학, 이론신학부의 조직신학과 교회사, 응용신학부의 기독교윤리학과 기독교교육학으로 세분되었다. 졸업생에게는 신학석사(Master of Theology)가 수여되었고, 기독교교육학 전공자에게는 국내 처음으로 기독교교육학석사(Master of Religious Education) 학위가 주어졌다.

1965년 9개 신학대학이 모여 '한국의 신학 연구를 증진하며 각 신학교육기관간의 사업을 협조하고 신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신학대학협의회(Korea Association of Accredited Theological Schools)를 발족시켰고, 1973년에는 전국신학대학협의회 산하에 '한국신학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전문 프로그램 위원을 두고 한국 신학교육 수준 향상과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1980년에 접어들어서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으로 대학원 수준의 전문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요청됨으로써 정규 일반대학원 외에 특수대학원으로서 신학대학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신학대학, 서울신학대학, 장로회신학대학, 한국신학대학 등 주요 신학대학들이 자체의 신학대학원을 개설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주요 교단들은 목회자의 교육수준을 대학원 차원으로 끌어 올려 목사 안수 자격 조건을 신학대학원 출신자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와 동시에 위의 4개 신학대학이 공동으로 신학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2. 신학과 교육의 현황

현재 정규 4년제 대학 또는 학력인정교로 신학과 교육을 시행하도록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는 37개교이며, 1995년 현재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 가입한 회원교는 32개이다. 이 중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는 신학대학은 14개교이

다. 이들 신학대학은 교회(교단) 성직자(목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professional education)과, 학문으로서의 신학 연구와 발전을 지향하는 학문 탐구 교육(academic education)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로부터 신학과 교육을 인가받은 신학교육기관은 기구 면에서 다음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독립된 신학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나사렛신학대학, 총신대학교, 고신대학교, 루터신학교 등

○ 종합대학교 안의 신학대학 또는 신학부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강남대학교 신학대학, 삼육대학교 신학부,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등

○ 종합대학교 안의 신학과 또는 기독교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기독교학과,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신학과, 계명대학교 신학과, 피어선대학교 신학과 등

또한 신학대학은 소위 교파신학으로 불리우는 '교회 교단 배경을 갖고 있는 신학교'(Denominational School)와, 특정 교회 교단이 직영하는 신학교가 아닌 교파 연합의 신학교(Inter-denominational School)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 교회 교단 배경을 갖고 있는 신학교

그리스도의 교회 : 그리스도신학대학

기독교대한감리회 : 감리교신학대학교, 목원대학교 신학대학,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서울신학대학교

기독교한국루터회 : 루터신학교

기독교한국침례회 : 침례신학대학교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 나사렛신학대학

대한성공회 : 성공회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측) : 안양대학교

신학부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 고신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 총신대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 장로회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장로회대전신학교,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한일신학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서울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성회 : 순신대학교
한국그리스도의 교회 : 대한기독교신학교, 한성신학교

한국기독교장로회 : 한신대학교 신학부 등

② 특정 교단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은 교단 연합 또는 초교파적 신학교

강남대 신학대학, 계명대 신학과, 부산신학교,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피어선대 신학과, 연세대 신과대학,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호서대 신학과 등

신학대학에는 신학과와 기독교학과 외에 관련학과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독교교육학과, 교회음악과, 목회학과, 선교학과 등이다. 정규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분야는 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학, 기독교교육학, 상담학, 선교학, 여성학 등으로 나뉘어진다.

3. 무인가 신학교의 문제

현재 한국에는 교육부의 인준을 받은 신학교육기관보다도 더 많은 수의 소위 '무인가' 신학교들이 존재한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는 '한국신학교육기관의 현황과 실태 조사'를 김기홍 교수(아세아연합신대)에게 위촉하여 연구조사한 결과 무인가 신학교 270여 개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인가 신학교는 실태조사에 극도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설문과 질문에 응답한 학교는 41개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현재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대단히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조사에 응한 41개교를 분석해 보면, 무인가 신학교는 대부분 서울(76%)에 있고 경기·경남·부산(합계 11%)에 약간 있다. 교단별로 보면 장로교가 64%를 차지한다. 이들은 시설물(운동장, 교사, 강당, 사무실 등), 교수 확보율, 장서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볼 때 교육부 인준 학교 못지 않은 상당 수준에 이른 학교도 2개교가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학교도 6개교가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무인가 신학교의 경우 예상대로 시설이나 교수진, 교육수준 등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처럼 무인가 신학교가 늘어난 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정규신학교 정원으로는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목회자 수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인가된 정규 신학대학에 대한 정원을 한국교회 성직자 수급에 맞게 확대 재조정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러한 정원의 과감한 증원 조처 없이는 무인가 신학교 문제는 계속 난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비교적 양질의 무인가 신학교를 양성화 해주는 것도 무인가 신학교 문제 해결에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학교의 경우만이라도 교육부와 다른 신학교 인준기관을 두어 수많은 신학교를 질적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국신학대학협의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신학교육관련 민간 단체로 하여금 신학교 평가 기준을 정하고, 인준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들 무인가 신학교를 실사하고 신학이나 교리를 제외한 교수, 시설, 교육 기자재 및 장서 확보율 등에 대한 평가 등급을 매겨 이를 공개함으로써 무인가 신학교를 규제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신학교육의 발전방향

대학개혁의 세계적 추세는 ① 대학의 폐쇄성·보수성·분파주의의 극복, ②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른 대학기능 변화의 수용, ③ 낭비와 비능률을 배제하고 합리성·효율성·생산성 제고, ④ 구성원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접근과 각 대학의 특성 개발, ⑤ 운영관리의 민주화·자율화·전문화를 위한 시도, ⑥ 학생소비자 시대(students consumerism)를 위한 단계적 접근 등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에서 대학개혁의 지침을 공포하였다. 사회가 크게 발전하고 전문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대학원 교육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대학원 과정을 학술편위 수여하는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 그리고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으로 세분화하고 그 기간도 단축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물결은 신학교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며 신학과 교육에 일대 개혁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신학분야 교육과정의 전문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혁이 요청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학교육의 원류였던 신학, 법학, 의학이 대학원 과정으로 승격되고 다학문적(interdisciplinary)으로 접근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다양화 전문화한 세계에 부응하는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원 교육체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학위규정에 따르면 신학분야의 학위과정은 신학사, 신학석사, 신학박사로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은 전문대학원으로 지향하여야 할 신학교육의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다. 전국신학대학협의회에서는 신학교육의 전문화 추세에 따라 전문대학원 학위과정의 신

설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에서처럼 각 교단에서 개설한 신학대학원의 신학석사 학위를 목사 안수에 필요한 교육 요건으로 요구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정원 제한을 받고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교단의 대학원 출신 목회자 양성을 위하여 비정규 대학원 과정으로 목회대학원 또는 선교대학원과 목회학박사원이 적지 않게 개설되어 교단에서 인정하는 소위 '교단인정' 목회학 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회 성직자 목사안수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으로 '목회신학석사'(M.Div., Master of Divinity) 과정과 이와 연계하여 '목회학박사'(D.Min., Doctor of Ministry) 과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목회신학석사과정은 일반학사학위 취득자는 3년 과정으로 하고, 신학사 취득자는 2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박사학위 과정은 종래의 신학박사는 학술편위(academic degree)로, 목회학박사는 전문학위(professional degree)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대학의 여러 학과 중에 분파주의가 가장 강한 것이 신학과 교육 현장이다. 이미 언급한 대로 신학교육은 자기 교파의 목회자 양성이라는 목적 때문에 교파마다 독자적인 교육기관들을 설립하였으며, 교수 및 학생의 상호교류가 거의 차단되어 있다. 의학과의 경우, 어느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든 동일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때문에 교육의 통일성과 평준화를 기할 수 있으며, 대학간의 교육의 질적 경쟁력의 정도도 가시적으로 판별할 수 있다. 반면에 신학과의 경우, 목사고시에 필요한 자격조건과 교육 연한과 고시과목이 교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학교육의 분파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자기 교단의 신학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게만 목사고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장로교 주요 교단이 교단 일치와 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신학교육에서 연합과 일치운동도 아울러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신학교육이 교파의 제한을 벗어나야 일정한 경쟁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교육개혁의 방향 중 하나는 산학협동의 강화이다. 신학교육의 경우, 이는 교회 교단과 신학교육기관의 협동체제 구축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까지 교단의 통제와 간섭이 신학교육의 정체성(identity)을 고수하는 데는 유리하였으나, 신학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신학교육은 외국 선진 신학이론을 전수하거나 실천적인 목회 기능인을 양성하는 양극화의 길을 걸어왔다. 전자는 이론에 치우쳤고, 후자는 현장에 치우쳤다. 이제는 교회의 현장과 신학교육기관의 강단 사이에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는 목회 현장의 과제들을 신학교육기관에 제시하여 교학협동 체제로 이루어지는 전문학술연구 체제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재정지원도 요청된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대한 열의와 관심이 아주 대단하다. 어느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는 5,000여 명의 선교사를 세계 각국에 파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수천 억에 달하는 선교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남북통일의 전망과 통일 이후 북한 교회의 재건에 필요한 목회자의 잠재적인 수요도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발맞추어 신학교육도 해외 선교와 봉사 활동에 대한 교육적 관심을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박준서/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석사, 프린스턴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으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동교 신과대학 학장과 연합신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고, 연세대 대학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국신학대학협의회 및 동북아신학대학협의회(NEAATS) 총무로도 활동하고 있다.